



보도 일시	2023. 3. 24.(금) 10:30	배포 일시	2023. 3. 24.(금) 9:00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740)
		담당자	사무관 이지우 (florair0915@korea.kr)

방기선 1차관, 「한-인니 경제협력포럼」 축사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 3. 24.(금) 「수교 50주년 계기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 방기선 1차관은 축사에서 양국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 지평 확장을 위해 ① 인니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시너지 확대, ② 녹색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문하였으며, ③ 인니 신(新)수도 건설을 새로운 협력과제로 제시했다.
 - 또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①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정부 간(G2G) 소통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② 지원규모가 확대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원 연계를 통해 인니 인프라 사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09:30~13:00
- (장소)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 (주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헤럴드미디어그룹(코리아헤럴드, 헤럴드경제), 주한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
- (후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인니 보건부
- (주제) 투자 협력을 통한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성장 청사진 공유
- (참가대상) 인니 정부 대표단, 국내외 기업체, 공공기관, 협회 등

※ [붙임] 「한-인니 경제협력포럼」 축사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존경하는 루훗 빈자르 반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님,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장관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양국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한-인니 경제협력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간디 술리스티야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님,
그리고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50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73년 수교 이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0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코로나로 다소 주춤했던 양국 교역*은
'22년 260억불 수준을 회복하며, 최고치였던
'11년 308억불 수준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 교역액(억불) : ('11) 308 (최고치) → (19) 165 → (20) 139 → (21) 193 → ('22) 260

이에 더하여 올해 1월 한-인니 CEPA가 발효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양국 교역액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졌습니다.

자동차, 보건·의료 등 다양한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에 집중하면서, 최근 5년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 對인니 투자(억불, 신고기준) : ('17) 7.5, ('18) 8.5, ('19) 15.4, ('20) 11.7, ('21) 24.2, ('22) 14.4

이제 역내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양국은, ASEAN+3, 인태 경제협력 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경제발전을 논의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3 양국 협력 지평의 확장

금년은 한-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양국 협력의 '시너지' 를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¹⁾과 젊은 인력²⁾을 저력으로 산업 고도화³⁾를 추진하여 연 5%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1) (주요자원) 니켈(매장량 세계 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2) (인구) 중국(14.3억명), 인도(14.2억명), 미국(3.4억명)에 이어 세계 4위(2.7억명, 평균 29세)

3)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식·음료, 화학, 섬유·봉제, 전자, 자동차를 5대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30년 세계 10위('21년 16위) 달성 추진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이고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철강, 자동차, 제약,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가진 저력에 투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양국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인도네시아 경제·산업의 발전을 함께 견인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net-zero)은 미래경제의 표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 아세안 최초 완성차 공장 준공(15.5억불(15만대) 규모, '22.3월)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중(11억불(10GWh) 규모, '23.上 완공 예정)

그리고 아세안 시장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며
한국기업도 미래성장의 가능성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 계속되어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또한 기업과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니 新수도 건설*’ 은

양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협력과제입니다.

* 자카르타 → 동칼리만탄섬 누산따라, 총 40조원 규모 사업으로 '45년까지 5단계로 정부 핵심구역, 수도지역, 수도확장지역 개발 예정(400km² 규모, 인구 150만명 목표)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EDCF를 토대로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협력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례) EDCF, EDPF, 수출금융 연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카리안담(EDCF 1.4억불)+카리안~세르퐁 도수로(EDPF 2.1억불)+세르퐁 정수장(수출금융 0.7억불) 지원

일례로 지난해 양국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6억불에서 15억불로 상향하는 기본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기존) 6년간('16-'21년) 6억불 → (상향) 5년간('22-'26년) 15억불('22.10월 체결)

이러한 지원을 통해 新수도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4 마무리

이러한 협력 지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국은 어제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금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쏘아올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대한 협력 가능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속담 중에 ‘조금씩 모여 언덕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기업 여러분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의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경제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성장 노하우를 가진 한국기업과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가
함께 성장해나갈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리마 까시!)